

인간 알레르기 있는 남자의 독특한 연애 기대하세요

MBC '로봇이 아니야' 내일 첫 방
 유승호 "첫 로코 도전 설레고 재밌어"
 채수빈 "1인 2역 감독님 믿고 연기"

'인간 알레르기'가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토글에 홀로 들어가 인간을 접촉하지 말아야 하나.
 6일 밤 10시 첫 방송하는 MBC TV 수목극 '로봇이 아니야'는 그런 '인간 알레르기'로 인해 연애 한 번 못 해본 남자와 피지 못할 사정으로 로봇 행세를 하는 여자가 만나 펼치는 사랑 이야기다.

유승호의 첫 로맨틱 코미디이자, 떠오르는 신예 채수빈이 '로봇'과 인간의 1인2역을 펼친다.

제작진은 4일 "인간 알레르기라는 병은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으면서 자기보호의 방어막을 치는 현대인의 모습을 극대화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내 곁에 있어 줄 존재가 나타난다면 그 존재가 로봇이라 하더라도 사랑에 빠지지 않을 도리가 없지 않을까"라며 "사람에 대한 깊은 상처로 인간 알레르기에 걸린 사내가 로봇을 만나 치유되는 이야기"라고 소개했다.

유승호는 거대 금융회사 최대 주주이자 뭐 하나 빠지는 것 없는 완벽남 '김민규'를 맡았다.

그는 김민규에 대해 "어렸을 때 어떤 아픔으로 인해 인간 알레르기라는, 세상에 없는 병이 생긴다"며 "그래서 15년 동안이나 사람과의 접촉이 거의 없던 와중에 '아지3'이라는 로봇을 만나면서 변화하는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유승호는 "이번 작품에서 신기한 경험을 했다. 저 혼자서 촬영을 할 때 번 지리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어떤 멜로 작품을 할 때 정말 상대방을 진심으로 생각해야 작품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이었던 것 같다"라며 "채수빈과 같이 찍을 때는 마음이 놓이는데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허전하고 빈 자리가 느껴지더라. 이런 것들이 멜로를 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힘이 아니었나 싶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멜로에 대해 겁을 많이 먹었는데 생각보다 말랑말랑한 부분도 많다. 민규의 진지함 속에 영동함이 오히려 코믹적인 요소가 될 것 같다"라며 "이번 작품 하면서 현장 나가는 게 즐겁고 설레고 정말 재밌게 촬영 중이다"라고 말하며 기대를 전했다.

그는 김민규의 매력 포인트로 "싸가지 없는 것"이라며 웃었다.

유승호는 "되게 버릇없고 싸가지 없이 행동을 하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다. 본인의 방어를 위해서 사람들을 일 부러 멀리하고 차게 대한다"며 "그러나 PD님께서 '민규가 싸가지 없이 해도 사람들은 미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김민규는 '인간 알레르기'로 인해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삼단봉을 휴대하고 다닌다.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기 위한 필수 소지품이다.

채수빈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청년 사업가 '조지아'와 인공지능 안드로이드 로봇 '아지3'을 동시에 연기한다.

채수빈은 로봇 연기에 대해 "PD님께서 너무 기계적으로 하면 오히려 거부할 수 있으니 딱 봤을 때 사람 같았으면 좋겠다고 하셨다"며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화남, 슬픔, 짜증 이런 감정들이 분어한다면, 아지3은 말투는 사람 같지만 감정을 다 빼고 기계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했다"

고 설명했다.

임기준이 '아지3'을 탄생시킨 천재 로봇 공학박사 '홍백균'을 맡았다. 사귀던 조지아에게서 매몰차게 버림받은 후 조지아를 똑 닮은 로봇 '아지3'을 만드는 괴짜다.

이들 외에 황승언, 강기영, 손병호, 이병준, 엄호섭, 서동원 등이 출연한다.

유승호는 "여러분도 짐작하셨겠지만 김민규가 진짜 로봇과 사랑에 빠지는 건 아니고 그 안에 웃을 수만은 없는 사연과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있다"고 귀띔했다.

제작진은 "주인공이 진심을 다해 로봇을 길들이고 학습시키는 과정을 통해 타인과 관계를 맺는 방법을 새로이 배우고, 그로 인해 삶의 지평이 넓어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야기"라고 소개했다.

지난달 2일 끝난 '빙원선' 후속작이지만 MBC 파업으로 방송이 한달 늦어졌다. /연합뉴스

장미여관·형돈이와 대준이, 싱글 '산토끼' 발표

밴드 장미여관이 힙합 듀오 '형돈이와 대준이'와 함께 오는 5일 디지털 싱글 '산토끼'를 발매한다고 소속사 록스타뮤직엔터테인먼트가 4일 밝혔다.

'산토끼'는 민요와 록, 힙합 등 다양한 장르를 섞은 노래다. 산에 사는 토끼는 바다에 사는 도다리든 위치와 계급에 연연하지 말고 어우러져 살자는 메시지를 재치있게 가사로 풀어냈다.

장미여관과 '형돈이와 대준이'는 MBC 예능 '무한도전'에 출연한 인연으로 꾸준히 음악 작업을 함께해왔다. 지난 여름에는 '인천 펜타포트 록페스티벌', '렛츠락페스티벌' 등에서 한 무대에 섰다.

이들은 오는 2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크리스마스 콘서트 '형돈이에게 장미를 대준이'를 열어 '산토끼' 라이브 무대를 최초로 선보인 다. /연합뉴스

EBS 다큐 '생명의 전략' 홍의권 촬영감독 방송촬영감독연합회 선정 '그리메상' 대상



남녀 최우수 연기상에 지성·서현진

EBS TV 다큐프라임 '생명의 전략 - 번식(사진)'의 홍의권 촬영감독이 '2017 그리메상' 대상을 차지했다.

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는 4일 대상 1작품, 최우수작품상 2작품, 우수작품상 4작품 등 '2017 그리메상' 수상작을 발표했다.

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가 1993년 제정한 그리메상은 매년 각 방송사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와 드라마를 대상으로 뛰어난 영상미와 실험적인 영상을 추구한 촬영감독을 시상한다. 연기자 부문 상은 1년간 가장 뛰어난 연기력과 좋은 이미지를 보여준 연기자를 촬영감독들의 투표로 선정한다.

올해 그리메상 최우수작품상은 SBS TV 드라마 '피고인'의 정민규·송요훈 감독과 KBS 1TV 대기획 UHD '순례 - 신의 눈물'의 홍성준 감독에게 돌아갔다.

우수작품상은 MBC TV 드라마 '파수꾼'(홍성욱·박정수), KBS 1TV 다큐 '알 3부작'(백우정), SBS TV 드라마 '사랑의 온도'(김홍재·최재락), EBS TV 다큐 '불멸의 진시황'(김용상)이 받았다.

'피고인'의 지성과 '사랑의 온도'의 서현진은 최우수연기자상, '파수꾼'의 키는 신인연기자상을 거머쥐었다.

시상식은 오는 8일 오후 7시 여의도 KBS 신관홀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5 걸어서 세계 속으로 (재)	5:50 허하랜드 스페셜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5 2TV 생생정보	00 MBC 뉴스투데이 (아시아의 전통시장 20 아시아의 전통시장 50 역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템즈
9	30 KBS 뉴스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 만만	30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저글러스(재)	50 투깝스 (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생로병사의 비밀(재) 55 UHD 한식(재)	55 생생정보 스페셜	00 TV속의 TV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30 영상앨범산 (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특 보험설계 (재)
1	00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스페셜 50 건강혁명	00 특선다큐 조애나 럼리의 일본기행	00 헬로키토 동물교실 55 지오메카	55 닥터 365
2	10 월요기획	00 생활의 발견 (재) 50 지동공부책상 위기 2	25 출발! 비디오 여행 다이제스트 50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00 무역의 날 특선 다큐 무역전쟁 최전선의 사람들 50 UHD 한식 (재)	20 TV 유치원 50 유유만만(재)	45 세상기록 48	
4	00 4시 뉴스집중			00 2018 불꽃연정대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10 공감다큐, 사람 35 UHD 한식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영상앨범 산 30 제보자들(재)	00 MBC 이브닝 뉴스 30 전생애 웬수들 (재)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40 팔도방송 스페셜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남	00 서남해안 관광프로젝트 -신해양시대 배다가 미라다
7	00 KBS 뉴스 7 35 특집다큐 우리 문화의 보물 아시안을 만나다	50 내 남자의 비밀	15 전생애 웬수들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공지락
8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벌24 55 저글러스(재)	35 신비한TV 서프라이즈 스페셜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애 한밤
9	00 KBS 뉴스 9 40 특집 웹툰 AI, 대항해의 꿈		05 위대한 영화의 탄생지 (해리포터의 스코틀랜드)	
10	35 KBS 뉴스라인	00 저글러스	00 투깝스	00 의문의 일승
11	05 세계건강기행 25 특집다큐 도심화재, 우리는 안전합니까?	10 철부지 브로망스-응미클럽	10 로봇이 아니야 미리보기 스페셜	10 불타는 청춘 1~2부
12	15 컬러 오브 클래식 3부작 (보헤미안 레드, 제지리우스)	35 영화가 좋다(재)	10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왕초보 영어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5:00 우주탐험가 킷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09:40 정수의 비밀(재)	15:15 꼬마기사 마이코
(아시아 시장기행	10:30 한국기행(재)	15:30 오드뎬, 이상한 아이들
인도 물리카드 꽃시장)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5:45 부릉부릉! 브루미즈
06:00 한국기행(재)	(씨글이와 공나물 조깅살뽕음)	16:00 얼마 깨두리
06:20 세계테마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6:15 두다다공
07:00 강철소년대 파이아로보	12:00 EBS 점오 뉴스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07:30 로이와 함께 하는 소망안전 이야기	12:10 미스터리 휴먼 다큐	16:45 땀방울 유지원1~2(재)
07:45 출동! 슈퍼웬스	12:40 세상의 모든 법칙(재)	17:15 로이와 함께 하는 소망안전 이야기
08:00 땀방울 유지원1~2	12:45 세계 토양의 날 특집 다큐	17:30 강철소년대 파이아로보
08:30 플라워링 하트	(출이 생명이야)	17:45 호기심 소녀 도트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3:40 성년 물고기(재)	18:00 생방송 특!특! 보너스나1~4
09:00 몬카트	14:30 정글에서 살아남기	19:00 몬카트
09:15 소피 루비	-화산섬의 비밀	1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5일 (음 10월 18일 丙寅)
<p>子 48년생 고난이도의 일이나 예외주의하면서 신경 써야겠다. 60년생 어마한 대국에 임하더라도 기본 구도를 고수하라. 72년생 생소한 길목에 놓여 있으니 남겨지지 말아야 한다. 84년생 일관성 있는 꾸준함이 요구되는 때이다. 행운의 숫자 : 24, 29</p>	<p>午 42년생 강력한 기득권의 횡포 앞에서 휘둘릴 수 있다. 54년생 가장 근본적인 사실부터 따져 보는 것이 좋다. 66년생 상황이 경색되기 전에 융통을 부리는 것이 맞다. 78년생 관리와 확인이 절실하다. 90년생 인정받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2, 56</p>
<p>丑 49년생 아무리 마음이 급하더라도 정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비하는 것이 생산적이다. 61년생 매우 희망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리라. 73년생 지나치다면 판단을 머금게 되리라. 85년생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경사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03, 04</p>	<p>未 43년생 지속 시간이 길어질수록 효과, 역시 점점 커질 것이다. 55년생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영역과 관계해라. 67년생 미미하다. 79년생 이의 앞에서 의리를 먼저 생각하라. 91년생 쉽게 속을 수도 있으니 정신 바짝 차려라. 행운의 숫자 : 65, 47</p>
<p>寅 50년생 별 문제없이 순탄할 것이나 편안한 마음으로 인해도 된다. 62년생 중용의 도를 지킴이 상책이다. 74년생 초여름의 소나기와 같은 기록이 보인다. 86년생 기회가 다가오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지혜롭다. 행운의 숫자 : 89, 07</p>	<p>申 44년생 자신의 장점이든 노후우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 56년생 거의 비슷한 정황이 단순 반복되면서 지루해라. 68년생 불만하기는 하나 흥사는 없고 평강할 뿐이다. 80년생 가만 갈수록 점수 수월해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8, 79</p>
<p>卯 51년생 감언이설에 현혹된다면 곤란한 지경에 이른다. 63년생 과거에 쌓아 놓은 은덕으로 인해서 특별한 배려나 사례를 받을 수다. 75년생 곁은 화려하나 실속은 별로 없을 것이다. 87년생 사실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줘라. 행운의 숫자 : 25, 80</p>	<p>酉 45년생 맹점이 보완되었을 때 상사한다는 것을 알자. 57년생 종합적으로 수렴한 후에 진행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상책이다. 69년생 안타까움을 더하는 원인 요소가 발생할 것이다. 81년생 너무 쉬워서 땅 짚고 헤엄치는 격이다. 행운의 숫자 : 21, 01</p>
<p>辰 52년생 조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실행을 보류하고 있는 것이 옳다. 64년생 미진한 가운데서 버티느라 고생이 많았다. 76년생 간절히 소망한다면 이루어질 수 있다. 88년생 끝이 기대하였던 바에 비해서 실망할 수도 있음을 알자. 행운의 숫자 : 63, 23</p>	<p>戌 46년생 진용과 면모를 새롭게 해야 할 때다. 58년생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70년생 자제히 들어다보면 익히 알고도 남음이 있었다. 82년생 치열하고 집요하게 임한다면 늦게나마 대성해라. 행운의 숫자 : 77, 44</p>
<p>巳 53년생 규칙적으로 이뤄져야 확실한 효과를 본다. 65년생 논란의 여지가 충분하다. 77년생 꼼꼼한 관리가 뒤따라지 않으면 쉽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89년생 오랫동안 고민해 왔던 난제를 이 하나하나 해결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2, 91</p>	<p>亥 47년생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배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59년생 전혀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 71년생 지향하는 기준을 높게 설정해 두는 것이 안전하고 생산적이다. 83년생 생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리라. 행운의 숫자 : 89, 75</p>